

커피 한 잔 값에 팔리는 돼지고기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추석을 앞두고 돼지가격이 서서히 하락하고 있다. 수입이 개방된 후 이제부터는 “호황은 짧고 불황은 길다”라는 말을 피부로 체험하게 되는가 보다.

그간 정부가 의욕적으로 양돈분야에 투자해서 양돈산업이 외형으로 보기에는 화려해졌지만, IMF 등으로 소비위축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이고 수입개방에 따른 값싼 외국산 돼지고기 수입으로 불황이 길어지게 되었다.

쇠고기 등 대체 축산물도 생산과잉, 소비위축으로 추석을 앞두고 또 다시 할인판매를 하는 등 양돈업의 주위 여건도 밝지 않다.

양돈업은 규모확대 시기를 잘못 택한 것이 눈물의 씨앗이 되었다. 이제 양돈업계의 투자는 빛으로 남아 이 달 중으로 윤곽이 들어날 부채경감 대책에 자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관(官)에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므로 업계와 관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며, 이는 다시 관 주도로 양돈업을 이끌게 되어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제 양돈업은 생산량과 소비량의 규모가 커져 관이 해결하기에는 어렵게 되었다.

돼지고기 소비량의 절반 밖에 안되는 쇠고기의 경우에 관이 주도적으로 수매·비축 등

가격안정에 개입하였다가 별 효과도 없이 막대한 자원만 낭비한 것이 좋은 예이다.

예전에는 수요가 있으니 생산만 하면 되었다. 위생문제도 걱정이 없었고, 판매에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최근 부족하던 삼겹살 시장이 값을 내렸는데도 흔들리고 있다. 수입 이겹살(소비자들이 삼겹살과 구별되도록 이겹살로 부른다)이 지난 9월 18일부터 10일간 근당 2,880원에 판매되어 유통되고 있는데 이는 커피 한 잔(보통 3,000원~4,000원)값도 안되는 것이다.

세상은 어차피 동업자간의 싸움인데 외국의 양돈업자와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

이제 우리도 생산비 절감 노력을 하고 품질 향상을 해야만이 앞으로 10년을 버티어 나갈 것이다.

이번에 협회가 미국곡물협회의 도움을 받아 개최하는 “돼지고기 품질 향상을 위한 세미나”도 이런 맥락에서 갖게 되었다.

이겹살이 소비자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좀 더 두고 본 후 재구매가 일어나는가를 조사해야 겠지만, 여론 주도층 주부상대의 홍보사업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협회는 이번에 (주)에그리브랜드 퓨리나

● ● ●

이제 수출을 늘리던가 국내 소비를 늘리던가, 아니면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량을 조절하는 방법 외에는 대안을 찾을 길이 없다.

양돈농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농가와 실직자, 수재민, 그리고 부도와 부도직전의 기업 등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에게 이번 추석의 보름달은 추수의 기쁨 보다는 겨울을 넘겨야

할 근심의 보름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리아의 협찬을 받아 서울과 부산의 지하철에 국산 돼지고기 홍보를 시작하였다.

돼지고기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하철을 이용한 여론 형성, 중산층을 상대로 돼지고기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나 소비자가 미처 알지 못하는 것들을 담아 홍보하고 있다.

홍보사업은 단기간 대폭 할인판매하는 재고정리식 소나기 홍보보다는 이슬비 식으로 기분 좋게 맞으며 흠뻑 젖도록 해야 하는데 이제 시작이 되었다.

쇠고기보다 비싼 돼지고기, 야채보다 비싼 쇠고기, 돼지고기보다 비싼 커피값이 우리의 웃지 못할 현실이었는데 최근 삼겹살 가격의 하락은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윤곽이 잡혀질 농가 부채의 정리방안이 확정되어도 양돈경기의 불황은 사료업체의 외상기간 단축 등으로 이어져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돈업체에 새로운 자본의 투자가 없이는, 제2의 도약이 어렵고, 양돈산업이 최소한 농가지원 정책자금

평균 금리인 6.5% 이상의 이익을 올려 원리금 상환이 가능할 때에만 양돈산업의 활력이 되살아 날 수 있다.

이제 수출을 늘리던가 국내 소비를 늘리던가, 아니면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량을 조절하는 방법 외에는 대안을 찾을 길이 없다.

양돈농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농가와 실직자, 수재민, 그리고 부도와 부도직전의 기업 등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에게 이번 추석의 보름달은 추수의 기쁨 보다는 겨울을 넘겨야 할 근심의 보름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땅 속에 다시 살려지는 씨앗이 있으면, 추운 겨울에 얼어죽을 것 같지만 봄이 오면 새싹이 나오기 마련이다. 그러나 땅 속에 씨앗이 없으면 봄이 와도 싹을 틔울 수가 없다.

양돈업만 어려운 것이 아니므로 희망을 갖고 나가자. **養豚**